

1. 등숙속도는 대소립 관계없이 온도와 정의상관을 보였다.
2. 밀의 등숙기간에 있어서 소립종은 대립종에 비하여 등숙기간은 34일정도로 비슷하였으나 적산온도로 보아 대립종이 높은 경향으로 조숙품종의 육성을 위하여는 대립종보다 소립종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었음.

5. 년차 및 지역간의 파종기 차이가 출수후 입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

( 맥류연구소 ) 하용응\*, 유용환, 연구부, 배성호

1. 출수후 입중의 증가현상은 년차와 지역간에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등숙기간 동안의 기상조건 즉 온도가 크게 영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출수후 25일의 천립중은 년차나 지역에 관계없이 북부>중부>남부의 순으로 무거웠으나 최종 입중은 년차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파종기에서는 조기나 만기파종에서 보다 적기 파종에서 천립중이 대체로 무거웠다.
3. 최고 입중에 달하는 기간 즉 생리적 성숙기는 년차에 따라 북부에서는 출수후 40±5일, 중부 43±5일 그리고 남부에서는 45±5일로 남부와 북부에서의 차이는 대체로 5일이었다.